

이소노카미 신궁 (石上神宮)

덴리시 (天理市) 동부 교외 지역의 숲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신사인 이소노카미 신궁은 오늘날에는 경내를 돌아다니는 닭들로 유명하지만, 소박한 경내와 달리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오래된 신사 중 하나인 이소노카미 신궁의 기원은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적인 힘의 중심지이자 고대 유물의 보관소로 시작해 2000 년 이상에 걸쳐 일본 황실의 장수와 국가의 번영을 비는 연중행사인 고대 제례 진혼제(진콘사이, p.XX)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은 기원전 91 년경 일본 조정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제사 관련 업무도 맡았던 모노노베 가문이 창건했습니다. 신궁은 초대 천황이 지냈던 것으로 여겨지는 신검 '후쓰노미타마 검'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현재 이소노카미 신궁에는 백제(기원전 18 년~기원후 660 년)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겨지는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검인 칠지도(p.XX)를 비롯하여 많은 성스러운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소노카미 신궁은 귀중한 보물들을 관리하며 일본 황실에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